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BK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

방 경 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BK 사업단장

서 론

두뇌한국(Brain Korea, BK) 사업은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규모 지원사업으로, 1999년 시작되었다. 7년 단위의 1, 2, 3단계 사업을 거쳐 2020년 9월부터 BK21 4단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간호 전공 분야가 단독 교육연구단(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국제 수준의 간호학자,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의 BK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향후 7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대학원생의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간략히 본 사업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사업을 통해 국내외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혁신적 개선을 이루고 통합적 케어의 가이드라인 개발하며, 간호의 과학화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국내 선도대학으로서 국내 간호계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아젠다 연구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건강형평성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다학제 연구, 산학협력연구의 활성화로 실무과학의 효용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론

1. 사업단의 비전과 목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비전은 ‘간호가 여는 건강한 미래’이며, 본 BK21 플러스 사업단의 비전은 ‘인간중심의 통합케어

능력과 연구능력을 함양한 글로벌 간호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고도화된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보건의료 현장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능한 실무 전문가이면서 간호과학의 학문적 지식체를 발달시키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국제적인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사업단의 교육, 연구, 국제화 측면의 목표는 Fig. 1과 같다.

2. 교육과정 개선 방향

본 사업단의 교육과정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해 QS 세계대학 평가 간호학 분야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영국의 킹스컬리지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다학제간 융합연구 및 이중학위 프로그램의 활성화,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역량 증진,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실무중심의 DNP 과정 설치, 적극적인 국제교류 및 국제보전에 대한 관심 증가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호학 분야 평가 관련 기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졸업간호사의 핵심역량을 분석한 결과 2011년 미국 Institute of Medicine (IOM)의 미래간호에 대한 광범위한 보고서에서는 미래 간호사의 역량으로 환자중심간호, 다학제간 팀 내의 일원으로 활동, 간호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근거 활용, 질 향상, 근거기반 실습 사용, 정보와 기술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2016년 미국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간호역량위원회에서는 미래 간호사를 위한 핵심 간호 역량으로 환자 중심 치료, 리더십, 의사소통, 전문성, 시스템 기반 실습, 팀워크 및 협업, 정보학 및 기술, 안전, 질 향상, 근거 기반 실무(EBP)를 제시하고 있었다.

미국간호사협회(National League for Nursing, NLN)에서

Corresponding author: Bang, Kyung-Sook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740-8819, Fax: +82-2-765-4103, E-mail: ksbang@snu.ac.kr

는 졸업간호사의 역량으로 인간번영(human flourishing), 간호 판단, 전문가적 정체성, 탐구정신을 들었으며, 영국 Nursing & Midwifery Council (NMC)에서는 2018년 간호사의 역량 기준으로 전문적인 가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간호실습 및 의사결정, 리더십, 관리 및 팀워크를 들고 있었다. 따라서, 본 사업단에서도 향후 대학원 과정에서 환자중심의 간호 제공 및 공감의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그리고 전문직 간 이해와 협업을 위한 과목 개설이 필요하며, 근거기반실무 마련을 위한 연구능력 향상, ICT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구체적으로 과목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해보면, 대상자 중심의 케어와 공감,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인문학 융합 교과목의 개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호학은 인간돌봄의 총체적,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응용학문으로서, 환자중심 간호, 대상자

의 개별성, 간호현장의 다양성, 서비스의 연속성 등 다각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가 될 것이다.

다음 현재의 양적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요구도가 높은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혼합연구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좀 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간호학 연구 비평과 연구논문 작성법' 과목을 통해 논문작성과 투고에 대한 실제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다학제간 협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 본 대학에는 전문직 간 교육(Inter Professional Education, IPE)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바, 의학, 약학, 보건학 등 학제 간 융복합적 접근과 전문직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된다면 향후의 전문직 간 협업과 공동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모든 학문분야와 보건의료 실무에서도 빅데이터와 정



Fig 1.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의 비전과 목표.

Table 1. 세계 유수기관의 간호사 핵심역량과 본 사업단 목표와의 연계 분석

IOM	핵심역량				사업단 목표와의 연계
	Messachusetts 간호역량위원회	NLN	NMC	서울대학교 미래간호인재 양성사업단	
환자중심간호	환자중심치료 의사소통	Human flourishing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	환자중심 간호 공감/의사소통기술	인간중심 통합케어 현장연구자
다학제간 팀내의 일원으로 활동	팀워크 및 협업 리더십	전문가적 정체성	리더십	전문직간 이해와 협업	ICT 활용 최첨단 융합연구자
간호 의사결정 간호의 질 향상 근거기반 실무	전문성 시스템기반 실무	간호판단 탐구정신	간호실습 및 의사결정	연구능력 근거기반 실무	
정보와 기술의 활용	정보학 및 기술	-	-	ICT 정보활용능력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간호리더 육성					

IOM=Institute of Medicine; NLN=National League for Nursing; NMC=Nursing & Midwifery Council.

보기술의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있는 상황이다. 간호사의 정보활용능력이 핵심역량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 실무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들을 준비시키는 ICT 역량 강화 과목 또한 우선순위가 높은 교과목이 아닐 수 없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간호중재 개발’과 같은 교과목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며, 국내 유일한 세부전공 분야인 간호정보학 과목을 간호학의 타 세부전공 학생들에게도 교과목이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실무과학인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발과 복합적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간호학 내의 세부전공을 아우르는 교과목을 통해 간호중재의 단계별 개발 방법을 습득하게 하며, 이후 적정성 평가를 거쳐 통합케어 표준모형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근거기반 실무의 발전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현재의 필수 교과목인 간호이론과 간호연구 과목, 그리고 세부전공별 과목 이외에도 사회적 건강이슈를 다루는 감염관리, 중독관리,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한 간호인력 교육, 간호사 수급 관련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교과목 개발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교육 수혜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다.

3. 교육과정 운영 체계 개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1907년 간호 공교육을 시작으로 113년 간호 교육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간호학 교육 기관이라고 자부한다. 1959년 대학교육 수준의 학사과정을 개설하고, 1964년 대학원 석사과정, 1984년에는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2020년 현재까지 742명의 석사 학위자와 328명의 박사 학위자를 배출하였다. 본 대학은 석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등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공통필수(5과목), 공통선택(10과목), 전공선택(67개) 교과목에서 석사 30학점, 석사·박사 통합과정 60학점, 박사 30학점을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대학의 학사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학사운영체계를 운영해 오면서 학내·외의 필요에 따라 교과과정을 개선해 왔다는 것이다. 대학원 과정에 총 82개의 개설 교과목이 공통필수, 공통선택, 세부전공 교과목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

어있다.

본 사업단이 분석한 미래의 기회 요인의 하나는 2019년부터 연이어 QS (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 평가에서 30위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2019년 5위에서 2021년에는 3위 안에 드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본 대학의 위상이 알려졌다는 것을 뜻하며, 미래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본 BK 사업과 같이 대학원생들이 연구역량을 증진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대내·외 장학금 지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큰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본 대학원 발전의 위협이 되는 요인은, 간호 실무가 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호 서비스를 정량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간호 실무가 이론적, 지식적 근거로 이어지지 못해 간호 학문과 실무가 유기적으로 상호 발전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이 위협(threat)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Fig. 2).

본 대학원은 학기마다 개설 교과목 전체를 전임교원이 강의하며, 충실하게 교육의 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이 연구성과로 나타나고, 연구성과와 연구역량이 다시 교육으로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사업단은 보다 더 체계적인 교육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대학원 과정 수료 후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학업과 임상실무의 병행,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한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개선의 일환으로 지도교수별, 세부 전공별, 교육과정별 개별 학생의 재학 기간, 학술활동 실적, 졸업 유예 사유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학생 개인별, 교실별, 전공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 지도 내실화를 위해, 입학 시에 지도교수와 면담 후 Academic Study Plan (ASP)을 제출하도록 하고, 매 학기마다 계획 달성을 점검하여 Progress Note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진행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가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전체 차원에서 지도교수 제도 등이 학생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유연하게 됨을 고려하여 본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연구주제와 상황을 고려한 학사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교과과정 만족도, 학교생활·학생지원 만족도, 대학원 생활 적응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평가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에 반영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현재 본 대학에는 학부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과정 개선위원회는 있으나 대학원을 위한 조직은 없는 상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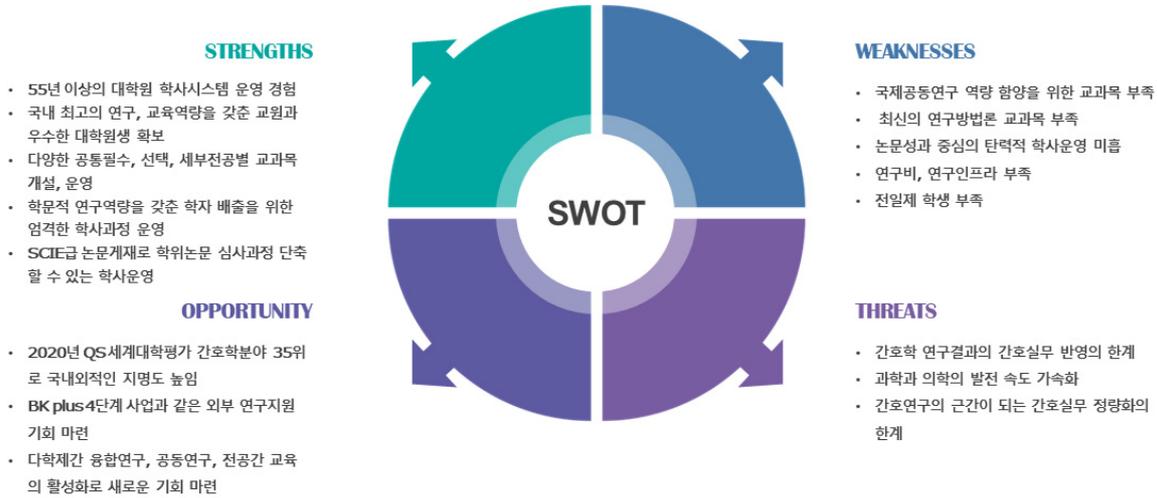


Fig.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학사운영의 SWOT 분석.

므로, 중장기적으로 현대사회의 변화와 의·과학 발전을 반영하는 교과과정 개편과 개별 교과목 개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학원 교과과정 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대학원 학사위원회 업무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복지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대학원생 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생활 지침과 연구 경험에 대한 수기를 모든 대학원생들이 공유하고 실제적인 연구 전략과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자치회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4.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연구 관련 과목의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 계획, 수행,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논문 게재 등의 연구 과정에 있어 대학원생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전략을 세미나와 콜로키움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학술대회 발표 성과물을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BK 사업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본 대학의 간호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원생 소규모 연구 모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개인 학위논문 연구를 진행하거나 실제적인 논문 게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제 학술지에의 게재 확대와 글로벌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비율을 높이고, 영어 논문 글쓰기, 논문 작성법, 연구비 수주를 위한 글쓰기 등의 특강을 통해 논문 작성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BK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논

문 에디팅, 통계분석 자문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면 더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독자적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량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K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의 의무 사항인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다지도록 할 것이다.

최근 본 대학 교수들의 타 학문분야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연구참여는 시야를 넓히고 향후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ICT를 활용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연구를 위해 공학, 통계학, 의학, 생물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다학제 연구팀을 구성하고, 상시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패널을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 활성화는 타 학문분야와의 협력 뿐 아니라 먼저 거점 국립대학교 간호대학과의 연구협력,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현대사회에서 리더로서의 덕목을 갖추는 것은 매우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까는 모든 교육자의 바람이자 책무일 것이다. 본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간호계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기본이 되어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간호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먼저 국내 간호계에서 대학원생들이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개방적으로 대학 간의 공동연구, 세미나 참여, 대학원생 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의 기회에 노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내에서 먼저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국제 무대에서도 자신 있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교원들의 국제 공동 연구들이 이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학원생들도 같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BK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도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BK 사업단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대학원생의 교육, 연구,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 하에 ‘미래 간호인재 양성사업단’을 출범하였다. 간호 전공의 단독 사업단(교육연구단)이 새로 탄생했다는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 학문분야가 과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학문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때로는 세부적인 지침 아래,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며, 학생들에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고 역량 있는 리더로 커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롤모델이 되어주는 책무가 우리 교육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BK 사업이 국내 간호계의 전체적인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본 사업단의 홈페이지 주소 <https://nursingbk.snu.ac.kr>).